

스타다큐멘터리의 조건

미셸 위와 비의 경우

소미연

1. 다큐멘터리의 영역 확장 및 힘

다큐멘터리가 흔해졌다. 각 방송사마다 사명을 걸고 ‘스페셜’에 역량을 쏟아 붓기도 하고 특집다큐나 해외의 명작들도 곧잘 방영된다. 영화관에서 독립 상영되는 다큐멘터리들도 늘었다. 몇 년 전부터 한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만 하루 종일 틀어주는 과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대 사회의 빠르고 가벼운 느낌과 역행하는 다큐멘터리의 때 아닌 ‘질주’는 아마도 다큐멘터리의 힘, 즉 진실이 주는 힘 때문일 것이다. 영화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것들은 사실이다. 덮여 있던 진실이다. 그래서 잔잔하게 시작해서 사람의 감정을 극단으로 끌어가는 힘을 얻는다. 이러한 다큐의 강점에 최근엔 다양한 촬영기법과 편집, 소재의 고리타분함을 깨는 과격 등이 어우러졌다. 그리하여 KBS의 ‘사랑’이나 ‘마음’과 같이 과학적이면서 독특한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하고, MBC의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와 같이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들이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애니메이션이나 실험이라는 적극적인 도구들을 이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지루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다큐멘터리에겐 메시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어찌 보면 현재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다양한 변수들은 이런 환경에서 비인기장르로 굳어져가던 다큐멘터리의 살아보고자 하는 변신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는 고리타분함을 벗고 ‘재미’의 추구라는 작은 양보를 통해 자신의 장르적 힘을 알릴 기회를 얻는다. 영역의 확장이다.

하지만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움직임 역시 기존의 관점과의 충돌과 견제 속에서 부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 다큐와 연성 다큐가 공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러하다. 고민이 없지 않을진대, 그 고민의 사이에서 교묘한 변종의 등장이 눈에 띈다. 바로 스타다큐멘터리다.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제작되어 왔지만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대중적 스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것은 작년 가수 ‘비’의 다큐멘터리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¹⁾ 이러한 스타다큐멘터리는 스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휴먼다큐의 형식을 띤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스타의 ‘노래’ 혹은 ‘드라마’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홍보물이 된다. 스타의 상품성에 주목하면 경제다큐, 혹은 보도다큐가 된다. 그리하여 스타다큐멘터리는 그 스타에 깊이 있게 천착해 알려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며 인간적 고뇌를 함께 살핀다. ‘인간냄새’를 지향한다. 감춰진 스타의 순간들을 들추고 감동과 정서적 감흥의 효과를 주는 것이 스타다큐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기에 스타를 하필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일까. 그리고 이 ‘스타다큐멘터리’라는 말에서 방점은 스타에 있는 것일까 다큐멘터리에 있는 것일까. 무엇이 어디에 편승한 것인가. 그것이

1) 2005년 케이블 음악채널에서 가수 유승준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하겠다. 연애에서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가 때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승자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이라고.

2. 스타다큐, 누구를, 왜?

스타라고 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워낙 드물지만 해외에서도 제대로 된 스타의 다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의 자격을 얻는가. 일단 단 대중이 그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대중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깊이 파헤칠 만큼 그 인물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많아야 한다. 이룬 것이 없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스토리가 없다면 다큐멘터리로 이야기를 끝나가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이야기 없이 자신의 음악이나 영상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홍보영상’으로 둔갑해버린다.

해외에서도 자신의 음악세계가 확실한 메탈리카, 마돈나 등의 아티스트들이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갖고 있다. 마돈나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녀의 일에 대한 강박과 카메라 노출증을 볼 수 있고, 메탈리카의 다큐멘터리는 멤버들의 충돌과 마약복용, 고민들을 강도 있게 다루면서 멤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수작으로 꼽힌다. 스타다큐가 지향해야 할 점을 보여준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는가의 문제는 ‘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가와도 상통한다. 또한 이 ‘왜’는 다큐멘터리에 쫓고 가야할 점이기도 하다. 그 사람에게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스타 자체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혹은 스타를 통해서 다른 말이 하고 싶은 것인가. 왜 하필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에서의 스타다큐멘터리는 얼마만큼이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켰을까. 스타다큐멘터리로서 이른바 기획의도에 얼마나 가까운 결과물을 내놓았을까.

3. 미셸 위-다큐멘터리로서 부족한 이유

미셸 위의 다큐멘터리는 주로 MBC에서 많이 쏟아냈다. <미셸 위, 나홀간의 도전>, <파워풀 원더풀 뷰티풀 미셸 위>, 그리고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진 <미셸 위의 도전과 사랑>이 그것이다. 이보다 앞서 SBS스페셜에서 <미셸 위 열풍>을 다루었다.

SBS의 <미셸 위 열풍>편은 그야말로 ‘열풍’에 초점을 맞춘다. 왜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지를 보여준다. 미셸 위와의 인터뷰는 거의 없고 시합 후 기자회견을 편집한 인터뷰가 중간 중간 있다. 완성도 측면에서 혹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나서 미셸 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다. 애초에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미셸 위 열풍>에서는 ‘미셸’보다 ‘열풍’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도물에 가깝다.

MBC의 <미셸 위, 나홀간의 도전>은 미셸 위를 나홀 동안 따라다니며 행보를 기록한다. 골프 치는 모습을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반가운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겠다. 골프장에서의 스윙, 하루 일과 등을 자세하게 따라가며 보여준다. 그러나 나홀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나홀 동안의 모습을 통해 그녀를 더 깊이 알 수는 없었다. 이 역시 미셸 위와의 인터뷰도 없이 ‘레터맨 쇼’의 화면을 편집해서 쓰거나 기존의 기자회견 장면을 재활용하는 등 새롭거나 깊이 있는 취재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방송된 <미셸 위의 사랑과 도전>은 김은혜 앵커와의 인터뷰로만 엮어져 있다. 개인적인 얘기는 나머지 세 편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어색한 인터뷰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미셸 위가 직접 하는 말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그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제목에서 가리키는 ‘그녀의 사랑’이 고작 배우 ‘장동건’이었음은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시청자가 아닌 미셸 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파워풀, 윈더풀 뷰티풀 미셸 위>에서는 미셸 위가 왜 대단한지를 끊임 없이 얘기한다. ‘그녀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화려함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던가 ‘그녀는 시작부터 특별하다’라고 강조한다. 왜 이 사람이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말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보는 것만으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왜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지를 내레이션으로 반복하기보다 시청 후 시청자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4.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을까

미셸 위는 골프 엘리트다. 미셸 위에 대해서는 선망의 눈길이 많다. 나이가 어린 데 비해 골프를 잘 치고, 미국인이지만 한국말도 잘한다. 한국에 대한 애착도 있다. 키도 훗칠하게 크고 예쁘장한 얼굴도 이슈가 됨직하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 것과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다. 물론 어린 나이에 남자 대회에 도전하는 정신이나 소녀다운 명량함도 보기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취재가 나온 적이 있던가. ‘스타’가 ‘다큐멘터리’를 잠식한 것이다. 그녀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1등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1승조차 이루지 못한 미셸 위가 이렇게 많은 다큐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슈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송사의 성급함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던가.

신장극복 스토리의 김미현, 최초의 우승과 눈물의 내조 스토리 박세리의 경우에도 이렇지 않았다. 이번 SK 오픈 컷 통과가 작은 사건은 아닐 테지만 그것은 다큐가 제작되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다. 또한 2003년 SBS 오픈 당시 박세리가 컷오프를 통과해 공동 10위에 올랐을 땐 국내대회고 코스가 짧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때 미셸 위의 이 같은 다큐멘터리 제작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녀의 골프인생에 대해 말하더라도 아직 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면 그 고뇌와 노력의 의미는 아직 빛나기 전이기 마련이다.

아직 채 아물지 않은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을 드러내다 보니 미셸 위의 다큐멘터리는 위인전과 같은 허무함을 준다. 그녀의 성공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색한 흔적이 없다. 기존에 보였던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는 얇은 고민. 홍보비디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삶을 표현해낸 방식 역시 문제가 있었다. 미셸 위라고 해서 왜 고민이 없었겠는가. 가마는 실제로 몇몇 다큐에서는 타 방송이나 스포츠뉴스 등에서 빌려온 인터뷰를 대신해서 사용했고, 추가적인 인터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의 기계적인 멘트들뿐이다. ‘떡볶이와 족발을 좋아한다’는 친근한 인터뷰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다 방영된 적이 있던 그야말로 ‘친근한’ 인터뷰를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어쩌면 미셸 위의 다큐멘터리가 다작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고뇌는 와 닿지 않고 한없이 대단하고 우리와는 아주 다르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없고 인생이 없다. 그저 부럽고 감탄할 만하다.

다큐가 반드시 보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인생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드러내어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는다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여서는 안 된다. 다른 방식들이 있다. 내용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5. 비-왜 다큐멘터리인가

비의 다큐멘터리는 국내에서 두 번 만들어졌다. KBS스페셜의 <밀착취재, 비 아시아를 넘어서>(2005년 10월 30일)와 2006년 3월 9일 방송된 <비를 만든 7명의 사람들>이 그것이다. 얼마 전 미국 ABC사에서 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왜 ‘비’일까.

왜 비가 주목받는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의 성공적 공연이 ABC사의 눈길을 끌었을 터다. 비는 아시아 전역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꽤 영향력을 갖고 있고, 비판과 호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데뷔전도 치렀다. 하지만 위의 두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당시에는 이러한 ‘신화’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이었다. 그렇기에 스타다큐가 기본적으로는 인물다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라는 인물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이다.

비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어머니를 잃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당뇨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돌아가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는 시상식(2004년 가요대전)에서 ‘어머니께 약속했던 대상을 드리게 되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가슴 아픈 가족력과 선명하게 양립하는 독기와 열정을 갖고 있다. 그는 천재가 아니다. 연습벌레다. 2)

그의 무명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크리스마스 때 밥을 못 먹고 혼자 배를 움켜쥐고 연습을 하던 그에게 ‘god’의 김태우가 빵을 사다줬는데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에피소드는 가슴 저린 사연으로 후에 타 프로그램에서 종종 회자된다. 보아가 기업형이라면 비는 지수성가형이다. 그래서 서인지 눈에서는 빛을 뿜고,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서 ‘인간신화’가 된다. 이러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화려한 가수 비가 아닌 인간 정지훈을 보고 삶을

2) 다큐멘터리엔 박진영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다. “당분간 비는 정상의 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후발자가 비를 따라오려면 2배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할 텐데 연습량으로 보면 비 이상 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느낀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밀착취재, 비 아시아를 넘어서>는 아시아의 한류스타라는 측면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놓치지 않는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그리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있다. 정상에 우뚝 선 그의 현 모습이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말해주지 않아도 볼 수 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혹은 지금의 비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감동은 거기서 시작된다.

<비를 만든 7명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비를 지금까지 있게 한 7명을 한 명씩 짚어가며 재미있게 다룬다. 3) 물론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예-오미희)도 있고, 그에게 도움을 준 정도의 편차가 심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 모두 ‘어려운 시절’을 딛고 올라선 비의 현재를 빛내주는 장치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본 인간 ‘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다중적 장치는 복잡다단한 한 사람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도록 작동한다. 많은 이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새로운 비를 발견했고, 그의 이야기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사실 2005년 KBS스페셜의 <비-아시아를 넘어서>의 경우 ‘홍보용’이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KBS스페셜이 정통성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있었다. KBS드라마 출연 직전에 방영돼 그 시점이 미묘했던 것이다. 물론 드라마 촬영장면이나 내용 일부분에 대한 소개도 다큐멘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괘씸죄’를 떠나서 작품 자체로서 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비의 인생을 이해함에 있어 드라마로의 진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왜 다큐멘터리인지, 혹은 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대답을

3) 그 7명은 다음과 같다.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고등학교 은사 김철홍, 안무 정성탁, god의 김태우, 헬스트레이너 고관장, 방송인 오미희, 그리고 그의 어머니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 다큐멘터리는 스타와 다큐멘터리의 성공적 결합이었다.

6. 확장과 변질의 딜레마

왜 다큐멘터리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곳이 비와 미셀 위의 다큐멘터리가 갈리는 지점이다. 미셀 위의 다큐는 스타만 보고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차용한 결과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주인공이 왜 대단한지에 대한 의식을 주입시키면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비의 다큐멘터리는 다르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이 녹아있고 스타의 생활을 따라다니며 보여주는 단순함을 넘어 다큐멘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하고픈 말을 독립적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타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다큐멘터리라면 쇼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적’ 진실을 기대한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드러나지 않았던 면모의 발견을 원한다. 다큐멘터리는 스타에 대한 궁금증, 알고자 하는 물음에 대한 성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이어야 한다. 깊이 파헤쳐 덮여있던 내면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구태여 다큐멘터리일 필요가 없다. 스타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라는 적절한 장르가 있다. 연예정보 프로그램들도 많다. 적어도 ‘다큐멘터리’라고 머리말을 달았다면 그런 이유를 보여야 할 것이고 시청자들도 그것을 기대한다. 콩은 콩자루에 담고 팥은 팥자루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존재의 이유를 갖고 뻗어나갈 때에는 확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질이다. 왜 그 인물이어야 하는지, 왜 다큐멘터리이어야 하는지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다큐의 확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면 무엇이 확장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뻗어나간다면 그것은 확장이다.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세를 ‘스타’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스타’와 ‘다큐’라는 멀기만 한 것 같던 두 요소의 결합은 우리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다. 그리고 그것은 가수 ‘비’의 다큐멘터리가 방증해 주고 있다.